

농협 전남본부, 인력난 지역 농가 돕기 팔 걷었다

지역농협 100곳, 농작업 대행 면적 44만5542ha 전년비 20.1% 증가 전국 33.6% 점유·생산비 1180억원 절감...개량물꼬 4만2828개 공급 벼 직파재배 8년째 시행 연 40억원 생산비 절약...드론 방역체계 구축도

전남 농가인구가 지난 2019년 처음으로 30만을 밑돈 가운데, 농작업을 대행하고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등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남 농가인구는 지난 2019년 기준 29만7890명으로, 1년 전보다 8475명(-2.8%)이나 빠졌다.

전남 농가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지난 2010년(39만5835명)에 비해서는 무려 10만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농촌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농작업 대행사업' '개량물꼬 및 다목적 소형운반차 공급' '미래형 방역체계 기반 마련' 등을 강화했다.

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21일까지 지역농협 100곳이 대행한 농작업 면적은 44만5542ha로, 1년 전 대행면적보다 20.1%(7만4696ha) 증가했다.

전남본부는 농작업 대행사업을 통해 지난 한 해 1180억원에 달하는 생산비가 절감된 것으로 분석

했다. 전남 사업 규모는 전국의 33.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작업 대행사업 규모는 ▲2018년 면적 32만1784ha·절감액 852억원 ▲2019년 37만846ha·982억원 ▲2020년 44만5542ha·절감액 1180억원 등 매년 15~20% 안팎 늘고 있다.

전남본부는 영농철 '영농지원발대식'을 열어 전사(全社)적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농작업 대행사업은 논밭 갈기, 김매기, 모심기, 수확 등 다양하다.

전남본부는 전남도, 농촌진흥청 등과 공동으로 매년 '발작물 농기계 농작업대행 시연회'를 열어 사업 기반을 넓히고 있다.

전남본부가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지원하는 또 다른 사업은 개량형 물꼬 공급이다. 지난 연말까지 전남본부가 신규 보급한 개량물꼬는 4만2828개로, 생산비 26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전남본부는 전남도와 함께 전남 22개 시·군에 7만5211개 개량물꼬를 공급하면서 11만개 넘는 개량물꼬를 유지하게 됐다. 총 절감액은 71억원 상당이다.

지난해 확보된 신규 사업비는 45억원으로, 한 해 동안 개량물꼬 확대 보급을 위한 홍보 설명회를 열고 광역사업을 벌여왔다. 사업비 부담 비율은 전남도 10%, 시·군 30%, 농협중앙회 30%, 지역농협 10%, 자부담 20%로 나뉜다.

또 여성·고령 농업인 활동 특성에 맞춘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를 1000대 공급했다. 해당 농업인이 지원받는 구입비는 최대 385만원(70%)으로, 전기운반차는 농산물을 운반하고 교통수단을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전남본부가 꾸준히 규모를 늘려온 '벼 직파재배' 사업은 지난 2014년 시범사업 이후 8년째 이어지

고 있다.

직파재배는 논밭에 밭모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씨앗을 직접 논밭에 심어 가꾸는 농사법으로, 매년 전남지역에서 40억원 안팎 생산비를 절약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남 59개 지역농협이 동참하며 5826ha에 달하는 논지에서 직파재배가 이뤄졌다. 이는 전년보다 12.3%(638ha) 증가한 규모다.

전남본부는 벼 직파재배 대단위 특화단지 등을 추진하면서 직파재배 규모를 2018년 3931.5ha(절감액 30억원), 2019년 5188ha(" 39억원), 2020년 5826ha(44억원) 등으로 늘리고 있다.

올해 농협 전남본부는 오는 2023년까지 3년 동안 '동물방역용 드론 자율비행 체계'를 전남도와 구축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남본부는 '1축협 1드론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겨울배추밭 덮친 폭설...재배농가 작황·수급 현장점검 나서

농협 전남본부, 해남 농가 방문 상품성 유지 위해 밭 관리 당부

주말 동안 전남지역에 기록적 폭설이 내리면서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농가 현장점검에 나섰다.

농협 전남본부는 박서홍 전남본부장과 김상보 해남군지부장, 서정원 화원농협 조합장이 최근 해남군 화원면 겨울배추 재배농가를 찾아 작황·수급 현장점검을 벌였다고 10일 밝혔다.

전남은 겨울배추 전국 최대 주산지로, 전국 생산량의 98.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남에서 22만3800t의 겨울배추를 생산했다.

최근에는 배추 가격 하락으로, 전남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 양동시장에서 팔린 월동배추 1포기 값은 지난 8일 기준 3000원으로, 1년 전(4500원) 보다 33.3% 떨어졌다.

박서홍 본부장은 "한파로 인해 동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성 유지를 위한 포전(밭) 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박서홍(가운데) 농협 전남본부장 등이 해남군 화원면 겨울배추 재배농가를 찾아 작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농어촌공사 "농어촌을 '한국판 뉴딜' 핵심공간으로 만들 것"

시무식서 경영방향 공유

한국농어촌공사는 물 관리 효율화와 농촌청년 유입정책 등을 펼쳐 농어촌을 '한국판 뉴딜' (경제부흥) 핵심공간으로 만들 한 해 계획을 세웠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4일 온라인 시무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경영방향을 공유했다. 공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디지털·그린 사업체계를 세워 농어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만드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이날 밝혔다.

주요 경영방향으로는 ▲디지털과 그린을 접목한 미래형 생산기반 모델 수립 ▲농어촌 성장 육성 ▲현장조직 활성화를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 등이 있다.

우선 식량안보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작물 중심 농지에서 다품목 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농지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생산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마·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자동·무인화 시스템을 적극 도입

하고 용수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 워터 그리드(Smart Water Grid) 체계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농어촌으로 청년을 끌어오기 위해서 잘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회적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사는 올해 분사 인력 150명을 추가로 현장부서에 배치해 공공서비스 개선과 사업실행력 강화를 추진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쌀가공식품 수출액 1503억원...역대 최고

전년비 26.9% 확대

지난해 쌀가공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26.9% 증가한 1억3760만달러(1503억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쌀가공식품 수출액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1억376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쌀가공식품 수출액 증가율은 2019년 21.4%에서 지난해 26.9%로 확대됐다.

지난 2018년 수출액은 8930만달러, 2019년 1억840만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측은 쌀가공식품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데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간편식 수요가 늘면서 쌀가공식품 시장이 커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떡볶이를 포함한 떡류 수출액은 한류 문화의 확산과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비 증가로 전년보다 56.7% 급증한 5380만달러를 기록했다.

냉동볶음밥, 즉석밥 등 가공밥류의 수출액은 코

로나19 영향으로 미국 시장 등에서의 가정간편식(HMR) 수요가 늘면서 32.2% 늘어난 4590만달러를 나타냈다.

국가별 수출액은 미국(5530만달러), 일본(1700만달러), 베트남(1270만달러), 중국(890만달러) 등 순이었다.

미국 수출액은 전년보다 53.3% 증가해 전체 쌀가공식품 수출액의 40.2%를 차지했다. 대미 쌀가공식품 수출액은 2018년 3020만달러, 2019년 3610만달러 등 꾸준히 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4년부터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 왔다.

원료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공용 쌀을 특별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1만7000t을 공급했다.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량은 2017년 22만t, 2018년 26만t, 2019년 30만t 등으로 늘어났다.

국내·외 바이어 유치를 위한 박람회인 쌀가공식품산업대전을 2008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상담회로 진행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설 앞두고 국산 농축산물 쿠폰 760억원 풀린다

aT, 참가 유통사 18일까지 모집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총 760억원 규모 국산 농축산물 소비쿠폰(할인권)을 푼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고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쿠폰사업에 참가할 유통사를 오는 18일 오후 1시(로컬푸드직매장·친환경매장은 자정)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본격적인 소비쿠폰 사업은 설 명절 대목에 맞춰

이달 28일부터 추진된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및 온라인몰에서 발급받은 소비쿠폰으로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현장에서 최대 1만원까지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직거래장터는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만원까지 30%를 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이번 행사 대상은 소비업체도 어려움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뿐 아니라 대형마트, 민간 온라인 유통사도 포함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강석이의 유머인생
‘밤벌레의 행복’
이기원 지음

정가 12,000원

전라도 촌놈 이기원이 쓴 **‘밤벌레의 행복’**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강석이의 유머인생**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은이 이기원

행복요양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응진서적, 흥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알라딘, 에스24 (배송료 무료)